

# KT노동보

## 제8대 당당한 노동조합

KTU KT노동조합 / 발행인 이재석 / 편집인 강세홍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전화 031-727-4820-4854 / 전송 02-750-5404 / 홈페이지 www.kttu.or.kr / 편집디자인 길킴(02-2272-7114)



### 2면-근로시간단축

98년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제기됐던 문제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업문제 해소였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 조차 이행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 중앙위, 조합간부 56명 징계

### “조직기강 확립위해 뼈를 깎는 고통 감내...조합간부들 마음가짐 새로해야”

지난 1월 '조직개편 저지를 위한 전국 지부장,분회장 결의대회'에 불참한 조합간부와 '개약된 인사·보수규정 무효를 위한 조합원 서명' 부진 조합간부에 대한 징계 지난 29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의결됐다.

이번 징계는 지난 3월 22일 지방본부위원장회의에서 서명부진간부에 대한 징계를 결의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서명작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책임지는 조합간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4월 19일까지 서명작업을 완료하고 28일까지 소명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29일 열린 중앙위원회는 전체 중앙위원 53명중 50명이 참석했으며, 징계양정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찬성 44명 반대 6명으로 경고조치 37명, 정직 16명, 정권 3명 등 총 56명의 조합간부에 징계를 결정했다.

지재식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는 조합간부를 징계하는 자리이다. 자기 식구를 징계를 준다는 것은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징계는 불가피하다. 이를 계기로 조직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자"고 강조했다.

#### ■ 조직개편 저지를 위한 전국 지부장,분회장 결의대회 불참 관련 조합간부

- 안광국 충북 괴산지부장 : 정직 1월
- 정미종 부산 고객센터지부장 : 경고

#### ■ 개약된 인사·보수규정 무효를 위한 조합원 서명 부진 조합간부

#### 경고

- 강북 : 최용기(본부)
- 강남 : 박종일(고객센터), 이권의(본부)
- 부산 : 정미종(고객센터), 서부기(양산), 최재성(고성)
- 충북 : 이창환 충북위원장, 박성하(옥천), 정용래(망전설국), 김호경(제천), 오도수(증평), 이성기(본부), 이명준(단양), 신동범(가경), 박희상(영동), 이광배(보은), 박상순(남청주), 장민철(진천), 오성택(서청주)
- 전북 : 서철용 전북위원장, 전제대(남전주), 송석호(고창), 이광옥(정읍)
- 강원 : 김국환(본부)
- 본사 : 김순근 본사위원장, 이용찬(운용시스템본부), 노일철(망관리지원단), 유명도(응인위성)
- 전남 : 유철웅(북광주), 이남식(해남)
- 대구 : 남승룡(울진), 김문수(북대구), 이규동(수성)
- 서부 : 유중현(본부), 한경섭(만수), 정지근(안양)
- 제주 : 지광호(사업단)

#### 정직 1월

- 충북 : 김석운(청주), 남기태(충주), 박덕근(음성)
- 본사 : 임동철(인터넷운용국)



지재식위원장이 징계에 앞서 징계의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있다.

#### - 충남 : 김철재(본부), 임내수(당진대의원)

#### - 전남 : 김효중(고객센터)

#### - 서부 : 김희대(화곡)

#### 정직 2월

#### - 전남 : 오진모(망전설국)

#### 정직 3월

#### - 충북 : 신장범(상당), 최동선(데이터)

#### - 강원 : 조대연(양구), 황원중(화천), 심동섭(인제)

#### - 충남 : 함세정(고객센터)

#### 정직 6월

#### - 대구 : 최대열(고객센터)

#### 정권 6월

#### - 강남 : 이찬익(망전설국)

#### 정권 1년

#### - 충북 : 안광국(괴산)

#### - 전남 : 탁삼진(광주)



<제공:민주노총>

## 노동자의 힘은 단결뿐이다

### - 5·1노동절

지난 5월 1일 세계113주년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가 3만여명의 노동자 학생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로에서 개최됐다. 이날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철폐 △경제자유구역법폐기 △WTO 수입개방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반전평화 △노동3권 쟁취 △여성차별 중단 △이주노동자 차별 중단 △장애인 차별중단 등 10대 노동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 인사·보수규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비밀리에 합의된 독소조항은 합법성 없어”

노동조합은 그동안 개약된 인사 및 보수규정 무효화를 위한 조합원 서명과 함께 본격적인 법적 소송 절차를 밟기 위해 취업규칙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4월 3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했다.

소장에 의하면 개정된 인사 및 보수규정의 직위 미부여는 근로자의 지위에 심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조치이며, 사장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자의 신분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를 주장했다.

또한 7대 집행부의 이동결위원장 김형재 사무처장은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단체교섭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회사도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에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는 부당하게 작성된 노사합의서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단체협약 제101조(교섭위원회 구성) 제1항에 의하면 '단체교섭위원회

노사동수로 구성하되 각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회사는 인사 및 보수규정과 관련된 어떠한 회의록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제7대 이동결 위원장과 김형재 사무처장의 서명날인된 합의서만을 가지고 그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터무니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조합은 효력정지의 근거로 근로기준법 97조, 대법원 판례, 단체협약 99조, 근로기준법 45조 등을 위배하였음을 들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어려운 조건에서 서명한 '인사보수규정 개정 반대' 서명지는 인사보수규정이 무효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이며 판단의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청인은 노동조합 지재식위원장, 김해관수석부위원장, 정홍근부위원장, 양정우 사무처장, 안창식정책기획실장, 류춘용조직처장, 강세홍 교육선전실장이며 피신청인은 이용경 KT 대표이사이다.

## 조합원 여러분 강제영업직 전환시 노동조합에 신고하세요

노동조합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 인력재배치시 현 직무를 기준으로 소속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노사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업의 관리자 중 일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창구, 운전직 등을 대상으로 영업직 전환을 반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수합된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원상 회복을 하고, 책임자에게 엄중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즉시 지부 및 지방본부, 중앙본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상은 드러나지 않은 채 원상회복 조치가 가능하오니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바꾸지 않으면 이 될 수 있습니다

### - 인사 및 보수규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노동조합은 지난 4월 3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취업규칙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개약된 인사 및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 97조, 대법원 판례, 단체협약 99조, 근로기준법 45조 등을 위반하고 있는 초법적인 취업규칙으로 향후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등에서 조합원 여러분들을 겨냥하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조합원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서명작업이 앞으로 법적투쟁에서 큰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7대 집행부와 회사사이에 밀실에서 체결된 인사 및 보수규정을 절대 인정치 않을 것이며 법적 소송 뿐만 아니라 이번 임단협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만이 인사보수규정의 독소조항들을 철폐시키고 고용안정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